動과 靜 한쪽에 치우지지 말라

〈동〉 〈정〉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㊻ 정처(靜處)와 요처(鬧處) 공부

"여러분, 진정한 도심(道心)은 대단히 어렵고 불법(佛法)은 그윽하고 현묘한 것이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니니라. 산승이 종일 말해 주어도 배우는 사람들이 모두 주의하지 않고 천 번 만 번 발바닥으로 땅만 밟고 다니면서 깜깜해 뭐가 뭔지 모르느니라. 아무런 형체나 모양이 없는 것이 밝고 뚜렷하게 홀로 비추고 있건만 배우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언어 문자로 이해하려 하나니라. 반백 년 오십 년이 넘도록 옆길로만 빠져 죽은 시체를 짊어지고 짚신이 닳도록 천하를 돌아다니고 있으니 짚신 값을 갚아야 할 날이 있으리라.

대덕들이여, 산승이 밖으로 향해 찾을 법이 없다고 말해 주면 배우는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법이 안에 있나 하고 곧 벽을 보고 앉아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조사 문중의 불법이라 집착하나니 이는 큰 착각이니라. 만약 그대들이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경계를 불법이라 여긴다면, 그대들은 저 무명 번뇌를 주인이라고 잘못 아는 꼴이니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깊고 깊은 캄캄한 동굴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니라.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경계일 뿐이니, 실제로 의지함이 없는 사람(無依道人)은 움직임을 쓰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음을 쓰기도 하느니라."

사람이 누구나 발심하면 수도(修道)를 할 수 있지만 도를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임제도 이 점을 상기시키며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불법은 그윽하고 현묘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고봉 원묘(高峰 原妙, 1238~1295)는 〈선요(禪要)〉에서 참선의 삼요(三要)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대신근(大信根), 대분지(大奮志), 대의정(大疑情)이다. 크게 믿고 크게 분발하고 크게 의심한다는 말이다. 이는 간화선 공부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수행의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깨닫고 보면 별것 아니라 한다. 뭐든지 알고 나면 쉬운 것이다. 공부가 되었다 해서 신통을 발휘하는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중국 송대의 소동파가 여산의 절강에 가서 보고 지은 시가 있다.

廬山煙雨浙江潮
여산의 실안개비 절강의 물결이여
未到千般恨不消
가보지 않았을 땐 온갖 한이 남더니만
到得還來別無事
가서 보고 오니 아무 별것 없고서
廬山煙雨浙江潮
여산의 실안개비 절강의 물결이네

이 시는 소동파의 오도송 격으로 보기도 하는 시다. 소문만 듣고 가보지 않았을 땐 못 본 것이 한이었는데 가보고 나니 별것 아니더란 말이다. 방(龐) 거사도 도인의 신통이 "땔감 나무해 오고 밥 짓는 물 길어 오는 것(神通幷妙用 運水及搬柴)"이라 하였다.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 특이한 신비도 아니고 본래 그러한 것이란 뜻으로 하는 말이다.

그런가 하면 도를 깨닫는 것은 아주 쉽다는 말도 있다. 비유하여 세수를 하다가 얼굴의 코를 만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극과 극을 통하게 한 말처럼 느껴진다.

이 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을 등지고 밖으로 찾아다니는, 짚신(신발) 닳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면벽하여 죽치고 앉아 혼침에 떨어지는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른바 동(動)과 정(靜)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경책이다. 비록 납자(衲子)의 가풍을 운수행각(雲水行脚)이라 하지만 제 물건 못 찾으면 송장을 지고 다니면서 신발만 닳게 할 뿐이고, 죽치고 앉아 혼침에 빠지면 깊은 동굴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처(靜處) 공부와 요처(鬧處) 공부가 둘이 아니라는 말이다. 캄캄한 동굴이 무섭다는 것은 몸이 동굴이며 선정(禪定)을 잘못 닦다 마경(魔境)에 빠지는 것을 경계한 말로 볼 수 있다. 〈능엄경〉 9~10권의 내용이 모두 마경을 가리는 변마장(辨魔章)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같은 대답으로 갈등선 깨우쳐

〈葛藤禪〉



세상 속 경전읽기

㊻ 병정동자래구화(丙丁童子來求火)

〈벽암록(碧岩錄)〉 제7칙의 평창(評唱)에 '병정동자래구화(丙丁童子來求火)'의 선화(禪話)가 나온다. 법안 문익(法眼 文益, 885~958)이 보은 현칙(報恩玄則, 900~975)의 갈등선(葛藤禪 종지를 알지 못하고 말에 떨어진 선)을 깨우친 내용이다.

현칙은 중국 오대(五代) 송 초의 스님으로 활주(滑州, 현재 하남 활현) 위남(衛南) 사람이다. 처음에는 청봉 전초(青峰 傳楚)를 찾아뵙고 문답하였으나 뜻에 맞지 않자 문익에게 가서 참구하여 말끝에 문득 깨닫고는 그에게 의지하여 머물렀다.

"현칙 감원(監院, 선원의 살림을 총괄하는 직책)스님은 법안 스님 회상에서 지내고 있었으나 스님께 도무지 참청(參請, 스승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함)하지 않았다.

하루는 법안 스님이 그에게 물었다. '감원은 무엇 때문에 다른 학인들처럼 법문을 청하지 않느냐?'

현칙: 저는 청봉(青峯) 스님의 처소에서 이미 입실(入室, 수행자가 친히 스승의 지도를 받기 위해 그의 방에 들어감)한(깨달은) 바 있습니다. 큰스님은 그 일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안: (그 때의 일을) 그대는 시험 삼아 다시 나에게 말해보라.

현칙: 저는 그 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청봉 스님은, '병정(丙丁) 동자가 찾아와서 불을 구하는군'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안: 좋은 말이구나. 그러나 그대가 잘못 알고 있을까 걱정되니 다시 말해보라.

현칙: 병정(丙丁)은 [오행(五行)에서] 화(火)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불이 불을 구하는 것이니, (마치) 제가 부처인데 다시 부처를 따로 구하는 것과 같지요.

법안: 감원이 과연 착각을 하고 있군.

그 말을 들은 감원은 (그 자리에서) 분(憤)함을 드러내지 않고 바로 (법안 스님 회상을) 떠나버렸다.

법안 스님은 혼잣말을 했다. '이 사람이 되돌아온다면 구제할 수 있겠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현칙 스님은 길을 가는 도중에 가만히 홀로 생각해 보았다. '법안 스님은 5백 대중을 거느린 (존경받는) 선지식이다. (그런 분이) 어찌 나를 속였으랴.'

이윽고 되돌아 와 다시 스님을 뵈니, 법안 스님이 말하였다. '너는 다만 나에게 물으라. 내가 너를 위해 답해주리라.'

현칙: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법안: (청봉 스님이 했던 답변과 똑같이) 병정 동자가 찾아와서 불을 구하는군.

그 말이 떨어지자 현칙 스님은 언하(言下)에 크게 깨달았다.

〈佛果圓悟禪師碧巖錄 T2003_.48.0147b13–b24〉

현칙은 청봉 스님의 간절한 답변에 대해, 생각으로 헤아린 알음알이를 내고,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법안이 인가하지 않자 제자 현칙에게 의단이 일었다. 그런 그에게 법안이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여, 청봉과 똑같은 대답을 하니, 현칙의 생각이 막혀버렸다. 법안 스님과의 문답이 표면상으로는 전과 똑같은 문답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법안 스님의 '병정동자래구화(丙丁童子來求火, 병정 동자가 찾아와서 불을 구하는군)' 라는 답변에, 생각이 막히고 헤아림이 끊겨 생각 이전의 자리에서 깨달은 것이다.

약간의 어구차이만 있을 뿐, 같은 줄거리가 〈직지(直指)〉의 보은 현칙 제하(題下)의 글에도 나와 있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㊷ 깨침의 길 7

보살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래 전의 일이다. 어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불자 한 분을 만났다. 나는 반가운 나머지 '안녕하세요, 보살님.' 하고 인사를 드렸다. 순간 식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무속인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일었다. 그러면서도 불교용어를 사용하는 데 남의 눈치를 봐야 되나 하는 생각에 화가 올라왔다. 무속인은 '보살'이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용어에 담긴 의미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살은 어떤 삶을 지향하는 것일까? 보살이 지향하는 길을 보살도(菩薩道)라 하는데, 발심(發心)과 원(願), 행(行)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발심은 글자 그대로 마음을 내는 것이다. 본래 발심은 발보리심(發菩提心)의 준말이다. 보리(菩提, bodhi) 즉 진리,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는 뜻이다. 이는 불성이라는 씨앗을 땅에 심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불교는 깨침을 목표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발심이 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출가와 가출을 구분하기도 한다.

발심이 되었으면 이를 구체적인 삶의 목표로 확립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살도의 두 번째 단계인 원(願)이다. 이는 보살로서 '이렇게 살겠다.' 라는 굳은 다짐이다. 보살과 중생을 구분하는 기준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보살은 원으로 사는 사람(願生)이고 중생은 욕심으로 사는 사람(欲生)이다. 원에는 모든 보살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총원(總願)과 각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별원(別願)이 있다. 대표적인 총원이 널리 알려진 사홍서원(四弘誓願), 즉 네 가지 큰 서원이다. 이는 중생을 모두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시작으로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워서 마침내 불도를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된다. 여기에서 불교의 깨침과 닦음은 중생구제를 위한 길로써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불교의 모든 의식이 사홍서원을 합송하면서 마치는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홍서원은 현실적으로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원이 커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의 능력이나 여건에 맞는 서원이 요청되는데, 별원이 바로 그것이다. 예컨대 의사가 환자들을 '내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진료하겠다.' 고 다짐한다면 매우 훌륭한 별원이 된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위해 집을 나설 때 '오늘은 조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는 별원을 세우곤 한다.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원을 세울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는 분명 다르다.

아무리 서원이 간절하다고 해도 그것을 현실에서 이루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필요한 일이 바로 수행이다. 마음을 내고 서원을 세웠다면,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것이 보살도의 세 번째 단계인 행(行)이다. 이 단계가 다름 아닌 대승불교의 실천체계인 6바라밀이다. 보시(布施)와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는 보살도를 완성하기 위한 수행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 괴로움이 가득한 이곳(此岸)에서 괴로움이 멸한 저곳(彼岸)으로 도달한다(到)는 것이 대승의 이상이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바라밀로써 지혜의 완성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보살은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살은 발심과 원, 행이라는 세 가지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앞에서 '보살'에 담긴 의미가 성스럽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철학에 바탕을 두고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름에는 그에 부합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준엄한 책임도 함께 따른다. 다른 이의 아픈 상처를 보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챙긴다면, 보살이라는 이름에 담긴 거룩한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살이란 이름을 함부로 쓰고 있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